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26일 (음력 9월 7일) 목요일

## 광주·전남 고위 관료들 지방선거 출마 '러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광주·전남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신기(59) 시민안전실장과 장성수(57)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사관(2급)인 강 실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부이사관(3급)인 장 본부장은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강 실장과 장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전에 뛰어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권오봉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명예퇴임하고, 더불어민주당당 여수시장 경선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문인(59)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명예퇴직 후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장을

문인·강신기·권오봉·장성수 잇따라 명예퇴직  
공직사퇴 시한 다가올수록 명예퇴직 더 늘어날 듯  
“12년 만에 양당 텃밭 쟁탈전...당 vs 무소속 고민”

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도 마쳤다.

공로연수중인 천재영(60) 전 순천부시장도 12월 퇴임과 함께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춘(59) 전남도청 중소기업과장도 연말께 명예퇴직 후 본격적으로 표발을 다질 예정이다.

각 정당별 공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공직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이 다가올수록 행정 전문성을 앞세운 현직 고위 관

료들의 출마 러시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관료들의 움직임도 분분하다. 배용태(62)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목포시장 선거에, 이승욱(60) 전 여수부시장은 강진군수 선거에, 안재승(59) 전 해남부군수는 해남군수 선거에, 박균조(60) 전 전남공무원연수원장은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 표를 던진 상태다.

또 서종진(63) 전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

은 광산구청장에, 최영열(54)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은 영암군수에, 노두근(64) 전 강진부군수는 합평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관료, 육군 장성, 국무총리실 조사관,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경찰서장, 읍장 등 고위 또는 간부 공직자 출신들도 단체장 출마제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 정치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과 정치인, 특히 지방의원들은 단체장 선거의 양대 축이라 할 만큼 선거 때마다 출마 러시”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특히, 2008년 5·31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에 양당 간의 텃밭 쟁탈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어느 당 경선에 참여할 지, 무소속으로 나설지를 두고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 인권유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전용 변호인접견실이다”고 25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나와 오늘 처음 여기 공개를 하는데 전용 접견실 이었다.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서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쓰는 전용 접견실이다 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사실상 하루 두 번 면회한다는 게 아니라 가(전용 접견실)에 있었다며 “군대 보냈는데 부대 일대기가 방 하나 있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엠 에이치(마그로) 이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쪽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 다 고 애들러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속해를 상상에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1

##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건립 시동...에너지밸리 탄력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착수식...2018년 1단계 완공 계획



광주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25일 광주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광주분원 조감도.

광주시 역점사업인 에너지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분원 건립이 본격화된다.

전기연구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25일 광주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정현 광주시장과 지

역 국회의원,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한전 KPS·한전 KDN 관계자,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은 광주시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총 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3만여평 규모로 들어서며 내년 말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분원에는 1차로 전력변환연구시험 업무를 위한 연구동과 실험동, ESS시험동, 태양광성능시험동 등이 들어선다. 이후 초고압직류송전(HVDC) 실험동과 마이크로그리드 실험부지 등 전기연구원의 차세대 연구시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0년까지 250개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미 국비와 민자 등 1345억원을 들여 한전, 효성 등과 함께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서은홍 기자

## “공휴일에는 광주시 관용 차량 공짜로 이용하세요”

주경남 의원 단독발의, 내년 3월부터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광주시 소유 관용(공용) 차량을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경남(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무상 이용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취약 계층의 이동이나 여가활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지역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이용권도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윤정자는 신청일 기준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운영 시 예상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소재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기준을 만드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소유 관용차량은 승용차 78대와 승합차 56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199대, 전기차 45대, 수소차 20대 등 모두 482대로 이 중 필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40여대가 무상이용 대상이다.



노회찬

10.27-11.12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 국화향연